



제 47 권 45 호

2022 년 11 월 06 일

복음과 삶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이웃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이웃이 말한다. "아, 당신은 종교가 있군요. 좋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죠. 성전이나 거룩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대답한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답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이라구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신의 은총을 구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대답한다.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이제 이교도 이웃은 불평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음과 같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모든 종교들의 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종교'라고 불리기 합당하지 않다.

팀켈러 목사(복음과 삶중에서)

오타와한인교회

384 Arlington Ave, Ottawa, ON, K1R 6Z5
(613) 236-4442
okcc.ca

주 일 예 배 (현장 & Live Stream)

오전 10:30

인도, 설교: 박만녕 목사

예배부름 <i>Call to Worship</i>	인도자
*입 레 송 <i>Praise</i>	주 임재 안에서..... 다함께
*신앙고백 <i>Apostles' Creed</i>	다함께
*예배기원 <i>Invocation</i>	인도자
*찬 송 <i>Hymn</i>	67장 다함께
기 도 <i>Prayer</i>	최정동 장로
찬 양 <i>Anthem</i>	주 의지하리 마하나임 성가대
봉 헌 <i>Offering</i>	337장(363장) 맡은이
봉헌기도 <i>Offering Prayer</i>	인도자
광 고 <i>Announcements</i>	인도자
성경봉독 <i>Scripture Reading</i>	베드로전서 1:1-2 인도자
설 교 <i>Sermon</i>	"택함 받은 나그네" 설교자
찬 양 <i>Praise</i>	파송의 노래 다함께
*축 도 <i>Benediction</i>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현장예배).
의복을 단정하게 하시고 앉아서 예배하십시오 (온라인예배).
(다음주일 예배기도: 김범수 장로)

수 요 일 예 배

11월 09일, 오후 7시30분

설교: 박만녕 목사

사사기 1:22-36 "승리보다 패배에 익숙해지다"

토요일 새벽기도회

11월 12일, 오전 6시

설교: 박만녕 목사

다니엘 5:17-31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교회 소식

교인등록과 새가족 환영 /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목회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예배-행사

- ① **현장예배 참석하기** / 성도님들께서는 현장에서 드러지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일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는 현장예배로만 진행됩니다-온라인 서비스 중단)
- ② **평일 새벽기도 시간 변경** / 이번주부터 새벽 6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③ **정기교인총회(인사)** / 일시- 12월 4일 저녁 8시 (zoom). **회원 자격:** 현장 제 5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본 현장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며, 만 18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 (or 예배)하고 교회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에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④ **교회 Covid Policy** / 예배당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조심해 주십시오.
- ⑤ **헌금안내** / E-transfer (offering@okcc.ca)로 보내주십시오. e-transfer 시 메시지 란에 이름이나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 모임-교육

- ① **교육훈련 및 세미나** / 모든 훈련들이 은혜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② **새가족 환영회** / 오늘(11월 6일) 오후 5시,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 ③ **세미나 안내 / 주제-**"기후증인,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인" **강사-**유미호 센터장(기독교 기후환경단체 '살림'대표) **일시-**11월 17일 저녁 7:30 **방법** - Zoom(추후공지) **대상-**OKCC 전교인
- ④ **유아세례** / 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사무실) **신청-**11월 말까지, **교육** - 2회, **세례식-**12월 25일(성탄절 예배시)

• 안내-알림

- ① **가구(생활용품) 기부** / Arabic Bible Church (Rev.Raya)에서 '시리아 난민을 위한 가구기부'를 부탁드립니다. 품목은 아래 참조. **문의-** 도시선교부 김지나 집사 (71kim03@gmail.com)
- ② **주차 안내** / 교회 제직들은 주일예배시 교회 주차장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월 예배위원 및 주차위원

예배위원 : 권영미, 이현영, 한은신, 안애리
주차위원 : 김범수, 유영창, 김영준

▶ **주일헌금 (10월 30일 합계 \$15,626.68)** [e-transfer:offering@okcc.ca]

십일조: 16,19,24,25,31,44,75,114,143,177,199,배**,

감사: 20,25,41,54,90,124,143,177,271,

건축: 3,11,16,20,38,40,45,100,144,177,199,200,

선교: 45,63,177,

▶ **건축헌금 누적금액 / \$237,984 (10/30까지)**

▶ 11-12 월 교회 일정 (변경 가능)

11월 06일 - 새가족 환영회

11월 14일 - 구역장 기도모임

11월 20일 - 교회설립 기념주일(46주년) & 태신자 초청주일

11월 27일 - 대림절 첫째 주일(성찬식)

11월 28일 - 구역장 정기모임

12월 04일 - 정기교인총회 (인사)

12월 12일 - 구역장 정기모임

12월 25일 - 성탄절예배 (유아세례) & 성탄축하행사

12월 27-31일 - 송구영신 새벽기도회? (31일-전교인 아침기도회)

(교육부서, 선교회, 집사회 일정도 기재 가능)

"교회설립 46주년 & 태신자 초청 주일"

일시 / 11월 20일 오전 10:30

저희 교회를 오타와 땅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주일
태신자들에게는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는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분반공부 안내>

부서	연령	시간	10:15~11:00	11:00~11:45
아이노스	1세~5세	10:15	아이노스실	아이노스실
필로이	Gr.1~Gr.6	~11:45	친교실(예배)	교육관(공부)
코너스톤	Gr.7~Gr.12		교육관(공부)	친교실(예배)

<가구&생활용품 도네이션 품목>

1. 1 double sized bed, 4 single beds 2. Sofa×2 and chairs

3. Dining table and chairs 4. Living room table

5. Utensils, pans, plates, and cups 6. Water kettle 7. Microwave

They are 6 people, the parents and 4 children.

The children's ages are: 2, 4, 7, and 8

주일 예배 안내

- 1부예배: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 2부예배: 오전 10:3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 3부예배: 오후 1:0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영어권).
- 4부예배: 오후 3:15 현장 예배 (바후림 - 한어 청년).
- 영아 유치부: 10:30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아이노스)
- 유초등부: 오전 10:15 현장 및 온라인 예배 (필로이)
- 중고등부: 오전 10:15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코너스톤)

평일 예배 안내

-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일-Zoom 토요일-현장예배)
- 수요일 예배: 매주 오후 7:30 (현장 예배)
- 구역 예배: 구역 상황에 맞춰서 모입니다.
- 금요일기도회: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박만녕 (pmyoung316@gmail.com)
- 바후림 담당목사: 이도윤 (bluenote73@hotmail.com)
- English Ministry Pastor: 조남종 (njerrycho@gmail.com)
- 청소년·유초등부 교육목사: 김지희 (newkjh00@gmail.com)
- 영아·유치부 교육전도사: 김광신 (Kwangsin.Kim@gmail.com)
- 시무 장로: 정운용(서기), 김범수, 배찬우, 유영창, 이승환, 이인원, 최봉균, 최정동
- 집사회장단: 서정훈(회장), 강명교(총무), 이교운(회계)
- 사무 간사: 김은정 (okcc.adm@gmail.com)

2022년 성경묵상 본문 (매일성경/새벽기도회)

주일 (6일)	단 2:31-49	목 (10일)	단 4:19-37
월 (7일)	단 3:1-18	금 (11일)	단 5:1-16
화 (8일)	단 3:19-30	토 (12일)	단 5:17-31
수 (9일)	단 4:1-18		

▣ 선교사 소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학생

한 장학생은 중국에 있는 북한인과 북한내의 성도들에게 사역도 하고 있는 신학생인데 11월 초에 강원도에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여 특별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험 하고 한국에 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신앙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데 이 교회가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드립니다. 장학생들중에 북한이 열리면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들에 따라가서 뒤에서 돕겠다고 하니 꼭 같이 가자고 합니다. 우리 생전에, 아니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Russia, 중국

화요일 마다 복음 통일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선교회의 목사님들이 러시아에 있는 북한 형제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잘 받아드리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고 한 형제가 머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 헌금을 보내 드렸습니다. 러시아에 선교하러 떠나시는 한 탈북민에게 복음이 든 SD카드 여러 개와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에서 북한인들 선교하는 것이 중국에서 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역은 중국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엿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

연변 과기대 창립30 주년 예배에 참석하여 오랫동안 많은 귀한 분들을 만나 옛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성가대에서 "은혜"를 찬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임시로 문이 닫히고 교수들은 다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간 400명의 헌신된 교수들이 조선족, 한족, 러시아 고려인, 한국 유학생 모두 약30000명에게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젠 다들 사회에서도 정착하여 세계에 흩어진 신앙인들이 되었으니 은혜입니다. 개교할 때 처녀 총각으로 1년 봉사하러 갔다가 만나 결혼하고 30년을 섬긴 교수 부부가 있습니다. 본혜퍼가 지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성가를 그 부부가 이중창으로 할 때 두 딸이 피아노와 플룻으로 반주하는 모습에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선교한 이 건축과 교수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희생으로 맺혀진 열매들을 가득 안고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열매들이 다 보이지 않으나 그 중의 하나가, 저와도 긴밀히 지내던 한 건축과 조선

죽 학생인데, 이젠 목사가 되어 지금 터기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젊음을 바쳐 헌신하다가 나와서, 생활이 힘든 교수들을 졸업생들이 돈을 모아 돕고 있다는 또 다른 열매를 봅니다.

북한과 남한의 회복

북한 주민들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곧 북중 국경을 다시 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나님 이 역사하실지 모르나 세계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북한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활이 너무 힘드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이름이나 성경이 복을 준다고 믿고 성경을 몰래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북한을 언제든지 열어 주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한국이 더 준비되길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나중 북한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한국에 마중물로 내려 보내준 탈북민들부터 잘 준비시키라고 하시는 지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이 땅을 보는 삶에서 저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매일 죽는 삶을 살 때, 그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탈북민들도 그 삶을 보고 깨닫고 돈을 추구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북한을 열어 주시면 변화된 그들과 같이 북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대 학생 선교 썬터의 개소 예배에 초청 받았습니다. 학생과 학부형과 교수들이 합심하여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썬터를 위해 헌금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선교 운동이 다른 대학으로 퍼져나가서 한국의 다음 세대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젊은 이들의 이탈이 세계적인 문제이긴 하나 우리 한국은 선택된 나라 제사상의 나라로서 (벧전 2:9) 이 문제를 놓고 더 기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전도단 주최로 "Let's Go Korea" 라는 기도의 날이 잠실에서 하루 종일 열렸었습니다. 짝 차진 않았으나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젊은 이들이 제법 많이 헌신하며 일어나는 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주어졌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뭐하다 왔니?' 물어 보시면 드릴 열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글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늘 동역 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정관, 경원드림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 - 나의 생명 - 까지
 다 주 님 앞 에 - - 드 립 니 다
 주 임 재 안 에 서 - 이 재 내 영 온 - 자 유 - 에 - 내가
 주의 거 복 안 이 롬 을 높 이 며 예 배 아 리
 어 린 - 양 찬 앙 아 - 리 - - 내 평 생 그 아 나 로 - 충 분 예 요 - -
 어 린 - 양 찬 앙 아 - 리 - - 내 가 주 의 임 재 안 에 서

너의 가는 길에

(원제: 파송의 노래)

고형원

Musical staff 1 with lyrics: 너의 가는길-에주의평-강있으리-평강의왕함께가-시니 너의 가는길-에주의축-복있으리-영광의주함께가-시니 네가

너의 가는길-에주의평-강있으리-평강의왕함께가-시니 너의 가는길-에주의축-복있으리-영광의주함께가-시니 네가

Musical staff 2 with lyrics: 1. 걸음걸음주 인도하-시리 주의강한-손넣이교-시리 너의

1. 걸음걸음주 인도하-시리 주의강한-손넣이교-시리 너의

Musical staff 3 with lyrics: 2. 밟는모든땅- 주 님대스-리리 너는주의-길예비게-되리

2. 밟는모든땅- 주 님대스-리리 너는주의-길예비게-되리

Musical staff 4 with lyrics: - 주 님나라위-하여 걸떠나는나의형-제여

- 주 님나라위-하여 걸떠나는나의형-제여

Musical staff 5 with lyrics: 주께서가라-시니 너는가라 주의이름으로- 거칠

주께서가라-시니 너는가라 주의이름으로- 거칠

Musical staff 6 with lyrics: 영광아위에-꽃은피어나고-세상은너만에서-주님의영광보리라-

영광아위에-꽃은피어나고-세상은너만에서-주님의영광보리라-

Musical staff 7 with lyrics: 강하고-담대하라 세상이기선주 늘함-게-

강하고-담대하라 세상이기선주 늘함-게-

Musical staff 8 with lyrics: 너와동행-하시며 네게새힘늘-주시리 -

너와동행-하시며 네게새힘늘-주시리 -